

소통, 치유, 공존의 국어교육

– 노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

김정우* · 김은성**

<차례>

- I. 서론
- II. 노인 리터러시 논의의 필요성과 접근 방향
- III. 노인 리터러시를 통한 국어교육의 확장과 심화
- IV. 결론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는 고령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향후 30년 이내에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¹⁾ 이러한 변화가 국어교육과 큰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 언어 공동체의 성격은 그 구성원의 분포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구성원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은, 한국 언어공동체의 언어 문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제1저자, kjw@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교신저자, martina@ewha.ac.kr)

1) 2008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 (10.3%)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향후 10년 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노인들만의 언어 문제로 한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인일 때, 나머지 연령대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연령 변인은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²⁾

결국 이 문제는 국어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국어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보다는 더 넓은 폭과 더 깊은 깊이의 국어교육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으로,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어 교육의 확장과 심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³⁾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노인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그 실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국어교육의 확장과 심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 리터러시와 관련된 인접 학문의 성과를 두루 검토하면서 관련 개념들과 논의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모색 방향을 국어교육의 변화와 연

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 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거대한 노인인구의 존재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세대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집단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들이 배태될 수밖에 없다(장경섭, 2001 : 22~23).”
- 3)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노인 리터러시’라는 주제는 주로 중등교육까지를 다루어 온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물론 ‘노인 리터러시’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중등 국어교육을 다루어온 국어교육학의 핵심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노인 리터러시’가 국어교육학의 고개인 중의 고개이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전지구적인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교육에서 노인 문제는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평생교육이나 노인복지 등의 학문적 접근으로는 노인들의 교육적 요구나 노인이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분화된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역동성과 견고함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것은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더 확장적인 시각으로 국어교육 현상의 실체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시도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 관점 아래,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의 대상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노인 리터러시 논의의 필요성과 접근 방향

1. 논의의 필요성

왜 노인 리터러시인가?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크게는 국어교육학의 확장과 심화의 한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³⁾ 노인 리터러시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노인들의 리터러시’이다. ‘노인들의 리터러시’라고 풀어놓고 나서 국어교육학이라는 렌즈로 다시금 들여다 보면, ‘노인들의’는 낯설고 중심에서 다소 먼 것으로 느껴지기 쉽다. 국어교육학이 성장해 온 주된 기반은 학교 제도 안의 초·중등 학생 대상의 국어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항상 초·중등 학생(어린이와 청소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에서는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어가는 특정 발달 기간 동안의 국어교육을 다루기 위하여 그 이전인 영유아 시기를 고려하는 한편, 청소년 시기 동안 신장시킬 국어능력의 완성점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제대로 섰을 시기의 국어능력을 상정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되는, 그래서 국어능력 역시 최고 도의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도달한 성인까지가 그간의 국어교육에서 고려한 인간 발달의 한계선이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는 아무래도 낯설 수밖에 없다.

3) 국어교육학의 대상은 국어교육현상임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것의 외연과 내포는 고정적이지 않다. 국어교육현상은 시공간, 사람 등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대상이다. 동시에 이 현상을 규정하고 이해하는 대상의 관점이 정적이나 동적이나에 따라서도 그 실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어교육현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필요하지만, 국어교육현상을 확장시키고 새롭게 해석하는 ‘움직이는 시선’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노인들의 리터러시’로 돌아가, 이제는 ‘리터러시’를 국어교육학의 렌즈로 들여다 보자. ‘리터러시’는 국어교육학의 중핵 가치이며 목표이다. 리터러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가장 간명한 정의의 틀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적 도구의 개념을 넘어서 ‘사고의 양식이고 목표 지향적 활동이며, 사회적 맥락과 활동의 목적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문화적 규정이 요구되는 현상이다(Langer, 1987 ; 박영목, 2008 : 44 재인용).

‘리터러시’가 국어교육학에서 부여받은 절대가치를 깊이 고려하면서 이것 앞에 ‘노인들의’를 붙이는 것은 그리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리터러시’라는 말이 국어교육의 장에서 갖는 강력한 힘 때문이다. ‘리터러시’는 그 앞에 붙어 의미를 한정해주는 모든 말을 강력하고 폭넓게 포섭한다. ‘노인’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여성’, ‘건강’, ‘정보’, ‘비판적’, ‘시민적’, ‘문화적’ 등, 포섭 대상의 집합은 그 크기가 매우 큰 폐쇄 집합이거나 또는 무한집합일 것이다. 이 광대한 폭은, 국어교육학을 메타적으로 바라 볼 때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기획의 핵심 지점으로 ‘리터러시’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양적 결과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타학문의 시각과 논리로 규명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건강 리터러시를 보건이나 간호 현상에 대한 이해의 일부분으로 영역 특수적 관점으로만 규명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리터러시 현상과 그 교육에 관심을 두는 영역 보편적 관점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국어교육적 접근은 영역 보편적 관점에 속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해당 리터러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깊이의 심화 과정으로 경험되리라 본다.

노인 리터러시를 논하고자 하는 둘째 이유는, ‘노인 리터러시’ 자체의 현실적 중요성 때문이다. 앞서 논한 첫째 이유에서 ‘노인 리터러시’는 도구적 수단으로 기술되었지만, 노인 리터러시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의사소통현상에 개재하는 변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주요한 변화와 맞물려 부각되는 변인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연령 변인이다. ‘늙어가는 한국’이라는 신

문 헤드라인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더 나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 ; 정민자 외, 2009 ; 김기태 외 2009 등).

이러한 사실은 국어교육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예측하게 해준다. 첫째, 한국어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고령자 참여자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소통현상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뒤파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의사소통은 개인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데 고령 사회 및 초고령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리라는 점이다. 셋째, 의사소통을 단순한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 보았을 때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공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때의 교육 분야의 실질적 기여도가 매우 클 것임을 고려하여 앞선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인간 언어 능력의 전생애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요인으로 실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까지의 국어교육은 국어능력의 발현에서 완성의 과정까지에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로 인해, 완성의 정점에서 쇠퇴 또는 손실의 과정에 이르는 주기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집중되는 국어교육에서는 점점 길어지는 노년기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안내하여 학교제도 공간 내에서 세대 간 의사소통 현상의 교육적 조정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매우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수준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국어교육에서 일정 부분 제공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 리터러시에 주목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이것이 시급히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있다.

2. 접근 방향

노인 리터러시를 국어교육의 시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간 발달에 대한 전생애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둘째, 노인, 노화, 노년기 등 유관 개념의 정립 방향

셋째, ‘노인’과 ‘의사소통’의 문제 확인

1) 인간 발달에 대한 전생애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노인 리터러시는 노인의 의사소통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 의사소통 현상을 짧게는 ‘유아~청소년기’, 길게는 ‘유아~성인기 일부(청장년기)’로 그 기간을 한정하여 보았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즉, 한 인간의 의사소통이 전생애적으로 어떤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접근을 전생애적 접근을 놓았을 때 노인 리터러시를 다룰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된다.

특히 국어교육에서는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및 정신의 노화에 따른 기본 조건의 변화로 리터러시 활동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성장의 과정에서 늦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교육적 처치에는 익숙하나, 쇠퇴의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능력이 불완전해지거나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목표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의 경우라면 또래 학생들의 최고 수준의 이상적 성취점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실제 목표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리터러시가 노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어떤 수준으로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보가 없다.⁴⁾ 정보가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을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달단계로 보지 않으

없기 때문에 초, 중등학생의 국어교육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초, 중등학생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미래의 삶에서도 고령층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관념적인 측면에서만 다룸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는 연쇄 구조가 만들어진다.⁵⁾

인간의 생애 단계별 변화를 교육과의 연관성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교육인간학과 같은 접근법은, 모든 인간은 모든 연령 단계에서 나름대로의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폭넓게 공유하고자 한다(정혜영, 2003). 평생교육이나 노년교육 등의 학문 분야와 함께 전생애적 교육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접근은 국어교육이 한국인의 언어 또는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전생애적 접근을 교육적 시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한편, 의사소통 행위는 신체적 조건과 인지적 수준 등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고도의 복합 능력이므로, 노인 리터러시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이 일어나는 전 영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발달 분야에 대한 특수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생애적 인간 발달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인간의 언어적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교육에서는 대개 정상아들의 언어적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을 다루기 때문에 신체적 발달 상황에 따른 변인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언어치료학, 언어병리학, 특수교육의 말장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장애아와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한, 국어교육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정상아까지만 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사회학적 연구들이 혼자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애단계들보다 훨씬 많이 짐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들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이론 정립이 요구된다(정혜영, 2003 : 85)."

5) 이미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노인들의 의사소통,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관련 부분이 일부 발견된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노인의 경우는 같은 연령대의 변이폭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연령대의, 완전히 다른 방향의 변화를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거나, 시력이 떨어져서 책을 못 읽거나,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 발달과 수행 문제를 다루는 인접 학문의 접근은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그림 1>은 작업치료학, 물리치료학에서 인간 발달과 수행의 영역을 해당 학문 과업에 맞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 가장 원쪽 열인 'ICF'부터 '작업치료 임상적 틀'은, 일반적인 영역 구분에서 출발하여 작업치료의 임상에 맞게 세분화한 영역 구분으로 상세화되는 순서로 배열된 것이다. <그림 1>에서 특히 주목할 요소는 의사소통 기술이다.⁶⁾ ⑨, ⑩가 의사소통 기술이 위치하는 곳인데, ⑨와 ⑩의 수직선상의 겹쳐진 영역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면 인간의 언어 행위 또는 인간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행위가 고도로 복합적이고 협응적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이제까지 ⑨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필요성이 긴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고려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을 고려하고 노인이라는 대상까지 포함하는 시야를 가지고 국어교육의 바탕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는 내재적 사고 능력 중심으로 언어 능력을 파악하던 데서 더 나아가 언어 행위와 연관되는 인간의

6)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and disability)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인간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최신의 분류기준이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배경적 요소(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적 분류 체계는 매우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쓰였던 인간 활동의 3대 영역 구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정신운동적 영역으로 나뉜다. 위낙에 널리 알려진 전통적 체계이므로 이 체계를 ICF와 병렬시킴으로써, 새로운 체계인 ICF 구성 요소와의 비교 및 대조가 가능하다. 인간 기능 영역은 ICF 및 전통적 분류 체계보다 더 영역-구체화된 것으로서, 인간 기능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환경, 행동, 특정한 과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작업 치료나 재활 치료의 인간 수행 분류 체계이다. **작업 치료 임상적 틀**은 작업 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수행 영역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크게는 ICF와 전통적 분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작게는 인간 기능 영역의 분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세 영역의 특성을 기능할 수 있다(양영애 외 역, 2009 : 13~14 참조).

모든 기능 영역을 포함하는 입체적 접근이 요청된다.

ICF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전통적	정신운동 영역			
	인지 영역	김정 영역		
기능의 영역	심리학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신체적 기능			
작업치료 임상적 틀	신체적 기능			
	신체적 기능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신체적 기능	학습 Education		
	신체적 기능	습관 Habits		
	신체적 기능	례화 Routines		
	신체적 기능	사회적 참여 Social Participation		
	신체적 기능	Work		
	신체적 기능	수간접 의사소통 IADL		
	신체적 기능	교간직무 IADL ADL		
클라이언트 요소	기능기술 (의사소통 기술 포함)	작업 영역 (Areas of Occupation)	수행패턴	배경(Context)
	기능기술 (의사소통 기술 포함)		*	

〈그림 1〉 임상적 틀과 ICF의 모델 사이의 관계(Cronin & Mandich, 2005 ; 양영애 외 역. 2009 : 13)

2) 노인, 노화, 노년기 등 유관 개념의 정립 방향

이제까지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주제어인 ‘노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개념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루었다. 이는 ‘노인 리터러시’가 쉽게 보면 ‘노인들의 리터러시’라고 간단히 정리 될 것 같지만,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었다. ‘리터러시’ 개념이 관점과 다루는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인’ 역시 정의의 어려움이 큰 대상이다. ‘리터러시’는 다음 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노인’ 및 관련 개념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노인은 인생의 후반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살아가되 노화로 인한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떤 속성을 보편적 공통 특성이라 할 수 있을지 정하기가 힘들다.

-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정서적·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과정에 있는 자(1951년 제2회 국제 노년학회).
-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Breen, 1976)
- 55세 이상의 혹은 그 이하라도 연령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Peterson, 1983)⁷⁾

간단히 세 가지 정의를 보더라도, 노인에 대한 정의가 특정한 대상의 속성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머릿속에 환기된 원형적 이미지의 합으로 ‘노인’이라는 전형적상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개인의 경험치와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년학 등의 노인 연구 이론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 분류로 Atchley(1987)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수영 외, 2009 : 41~43 ; 조성남, 2004 : 80~81).

- 역연령(Chronological age) 기준 : 출생 이후의 햇수. 60세와 65세 등을 노인 기준 시작선으로 잡음
- 기능적 연령 기준 :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기능 정도에 따른 판단으로 주관적임.
- 생의 단계 기준 :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결합한 기준으로 청년 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의 단계를 나눔. 노년기는 다시 초기 노년기(later maturity)와 후기 노년기(old age)로 나눔.⁸⁾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연령에 대해 주관적·심리적으로 인지하는

7) 첫째와 둘째 정의는 홍숙자(2001 : 15)에서, 셋째 정의는 한정란(2000 : 74)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8) 그러나 노령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더 세분화된 노년기 단계 구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Kaluger(1979), Neugarten(1987)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감정적 의존도와 요구, 건강 등을 기준으로 <젊은 노인(young old) : 65세부터 74세>, <노인(old) : 75세부터 79세>, <늙은 노인(old old) : 80세 이상>으로 나눈 바 있다(강수균 외, 2001 : 119).

정도에 따른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이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연령(Social age)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기도 한다(조성남, 2004 : 80~81).

이상의 검토에서 보다시피, 노인 개념은 절대적 기준으로 정리될 수 없다. 누가 노인을 지각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노인을 정의하는가,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 등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들이 적용되어 노인의 개념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노인 개념의 특수성은, 국어교육적 접근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주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생애적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점 하강의 곡선으로 내려오는 시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뒷받침만 된다면 리터러시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에서 주목하는 노인, 노년기의 적절한 개념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때 노인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 기준인 역연령 등의 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리터러시 등의 의사소통 관련 기준의 특수성만 반영되면 일반적 수준의 틀의 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노인을 규정할 때 현재 입법 및 행정적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역연령 기준인 65세를 일반 기준으로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기준을 영역 특수적 기준으로 삼아 이차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임시적으로 제안한다.

한편, 노인 유관 개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화’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노화’의 일반적 정의보다는 ‘노화’의 긍정적 목표와 관련된 개념인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인 노화’이다. 김수영 외(2009)의 지적대로 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우선적 목표는 노화 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함이지만, 국어교육에서는 노화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정교한 정의를 피하는 것보다는 국어교육과 연관된 노화 관련 개념을 포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국어교육에서는 병리적 노화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언어능력 손상 노인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적극적 대상 영역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주된 노인 학습자는 정상적 노화 과정에 있거나, 매우 긍정적인 노화 과정을 보이는 노인 학습자가 되리라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는 특히 노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 목표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란, 노인으로서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참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최대 활용의 기회를 갖는 과정이다. 여기서 ‘활동적인(active)’이란 단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이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WHO 2002 : 12)⁹⁾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란, 연령에 적합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노화과정으로, 모든 이들이 원하고 노력하는 노화의 과정을 말한다. 성공적 노화의 여부는 대개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율성,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의 통제력, 생활만족도 등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혹은 질적 측면의 준거들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Baltes & Baltes, 1990 : 5~8)¹⁰⁾

‘활동적 노화’의 개념에서 ‘활동적’의 풀이 내용 중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목적으로 삼는 의사소통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성공적 노화’의 판단 기준으로 노인들의 의사소통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적 노화’의 기본 전제 조건 및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대 활동으로, 노인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적 제고, 그리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의 점진적 쇠퇴에 따른 리터러시 환경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활동적 및 성공적 노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 교육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자 하는 국어교육적 접근의 토대이다. 달리 말하면, 국어교육에서는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초 능

9) McIntyre & Atwal(2005) ; 황기철 역(2009 : 2, 4)에서 인용함.

10) 한정란(2001 : 72)에서 재인용함.

력인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 개발, 쇠퇴 속도의 조정, 노인 친화적인 리터러시 환경 개선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노인’과 ‘의사소통’의 문제

노인들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학문 분야는, 노년학, 커뮤니케이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등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노년학과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등등은 좀 더 간접적으로 다루어 왔다. 전자의 경우, 노년학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노인 또는 노화를 규정하는 주요 부문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었고,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하위 주제 중 하나로 ‘노인(나이듦/노화)와 의사소통’라는 두 단어의 접속 형태로 다루어 왔다.¹¹⁾ 노인에서 출발하여 의사소통 문제로 가느냐, 의사소통 문제에서 출발하여 노인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후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 또는 ‘지지(支持)’ 활동과 관련된 학문 영역인 만큼, 그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적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매우 일반적 수준으로 의사소통 현상이 소개되거나, 반대로 매우 특수한 수준(예: 치매 노인, 뇌질환 노인 관련 의사소통 등)으로 다루어진다.

본고에서 다루는 ‘노인 리터러시’는 이른바 ‘노인과 의사소통’에 대한 대안적 명명이다. 하지만 “현대의 리터러시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11)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명으로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나의 통합된 단일 주제로서 수렴하고자 한 연구자의 다음 기술에서 현재 시점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대상이나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대상만 하더라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은 노년학과 언론학의 교차로에 서 있는 제3의 영역처럼 다루어져 왔다. 학문적으로도 아직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홍명신, 2007 : 2).”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이병민, 2005 : 125)”는 점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 어떤 의미와 의도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리터러시’를 협의의 문자 해독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적 의미를 원형적 출발점으로 가지고 있되, 현대의 문식 환경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호적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상위인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의의 의사소통능력으로 확장된 광의적 의미로 파악한다(안정임, 2007 ; 박영목, 2008 ; 노명완 2008 ; 박인기, 2008 참고).

‘의사소통’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리터러시’라고 한 이유는, 노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단순히 도구적 소통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생물학적 변화를 가진 존재의 특수성, 소외적 타자 위치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결합된 것이므로 ‘의사소통’보다는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연합 의미가 부각되는 ‘리터러시’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 리터러시는 연령을 기준으로 리터러시를 세분할 때 포착되는 리터러시의 한 종류이다. 연령은 한 인간의 리터러시 발달 과정에서 종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다. 나이와 관련된 인지적 변화는 노인들에게 말하기 및 다른 유형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Kemper & Kemtes, 1999 ; Hedden & Park, 2001 : 84 재인용). 한국의 정상 노인의 경우, 식사, 몸단장, 배변, 이동 및 기거,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일상생활 능력 중, 특히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많은 곤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수균 외, 2001).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적인 신체적 조건의 변화이다(1995년 미국 성인 기준). 만성적 조건에서, 표현 능력에는 ‘관절염’과 ‘시력 손상’, ‘말하기 능력 손상’ 등이, 이해 능력에는 ‘시력 손상’, ‘청력 손상’ 등이 영향 요소가 된다. ‘뇌혈관 질병’은 표현 및 이해 활동에 기저가 되는 사고 활동의 영향 요소이다. 손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45세 전에는 남녀 모두 미미한 수준의 손상이 일어나지만 45~64세 시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손상치가 상승하고, 65~74세 시기에는 급속도로 본격적인 손상이 진행되어, 75세 이후에도 대체로 직전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의 손상치를 보이며 손상의 정도가 심해지게 된다. 결국 전반부의 두 시기와 후반부의 두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부문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리터러시 활동은 언어 발달적 측면에서 45세 이후 시기부터 노화의 징후를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여 65세를 전후하여 확실히 쇠퇴의 시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나이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신체 조건의 변화(Charness, 2001 : 12)

만성적 조건	남 성				여 성			
	45세 미만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45세 미만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관절염 (Arthritis)	2.24	17.67	38.55	43.7	3.6	28.54	49.82	61.61
시력 손상 (Visual impairment)	2.77	6.03	6.87	13.56	1.28	3.71	4.31	8.87
청력 손상 (Hearing impairment)	4.14	20.36	33.28	43.25	2.63	8.97	15.9	30.73
말하기 능력 손상 (Speech impairment)	1.62	1.39	1.53	0.65	0.65	0.46	0.21	0.8
뇌혈관 질병 (Cerebrovascular disease)	0.12	1.63	5.24	11.3	0.21	1.36	4.58	9.02

노년기의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해가는 의사소통 제반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노년학이나 언어병리학 등 노인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 연구성과를 축적한 학문 분야에서는 노인의 의사소통 현상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다루어 왔는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병리학과 노년학의 성과를 대표적 사례로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정상 노년층의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의 구인 설정(김정완 · 김향희, 2009 : 498)

영역 대분류	영역 소분류	연구 내용
호흡능력	기능적 변화	-폐활량 조절 -호흡체계의 기능
	말에 미치는 영향	-운율 특징 -말의 유창함
음성능력	기능적 변화	-성문폐쇄기능
	구조적 변화	-후두 연골, 선, 근육, 무게의 변화
	음성 : 일반적 특성	-음질/음량/음도
조음능력	기능적 변화	-혀의 움직임 -구강 감각
	구조적 변화	-혀 두께
	말 특징	-말 명료도/조음 정확도 -말 속도
청각능력	청력 : 일반적 특징	-언어 단위별 지각 능력 -음소의 조음 위치, 주파수 범위의 영향 -정상 노인 내에서 청력장애 비율
	듣기 환경	-소음, 청자의 수
	심리적 변화	-당황, 좌절, 포기
언어이해능력	문자	-시력저하로 인한 읽기능력 손상
	연관 인지능력	-주의집중력/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속도/단기기억/추론
	의미	-단어 이해
	형태 · 구문	-문법 판단 -문장 이해
	담화	-농담(구어 · 비구어), 추론 -담화 속도, 길이
언어표현능력	글	-구문구조
	의미	-단어 정의 -품사 -이름대기
	형태 · 구문	-유창성 -구문적 복잡성(형태 및 사용빈도)
	담화	-주제의 일관성, 응집성 -요약, 요점, 속담 설명

<표 2>는 언어병리학적 관점에서 정상 노년층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 연구성과 총 115건을 메타분석한 김정완·김향희(2009)에서 제시한 결과를 것이다.¹²⁾ 주의할 점은 이 틀이 원 연구물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한 분류틀이었다는 사실이다. 원래 목적은 그러했으나, 언어병리학에서 연구 영역을 나누고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곧 정상 노인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어떤 구조로 파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어병리학에서는 노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체적 기능 중심의 영역(호흡 능력~청각 능력)과 실제 수행 중심의 영역(언어 이해능력, 언어표현능력)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세부 내용 요소에서 특기할 점은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의 경우 내용 요소가 대체로 언어 단위의 구분에 따라 단편적이고 분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측정을 위한 구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으로 노인 의사소통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통은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소통의 문제는 언어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구성되는 언어적 주체의 모든 부분이 삶의 복잡다단한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입체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학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1980년부터 2009년 사이의 한국노년학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동향을 메타적으로 정리한 홍명신(2010)에서 노년학의 관련 성과를 “소박하지만 점진적인 성취(44)”라고 평가한 대로, 이 분야의 노인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천착은 비교적 부수적인 분야로 다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목적적인 연구대상이 되기보다는, 노년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다루어지고 ‘전화’ 등의 구(舊) 미디어가 여전히 중요시 되는 등, “노년학의 렌즈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진단하는(홍명신, 2010 : 43)” 경향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관심의

12) 이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성과를 망라한 비교적 큰 규모의 메타분석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발점이 언어 및 의사소통 행위에서 출발하는 학문적 접근의 대안적 펼요성이 요청됨을 확인하게 해준다.

III. 노인 리터러시를 통한 국어교육의 확장과 심화

얼마 전 ‘중학생 패륜녀’와 ‘손찌검 할머니’의 거친 충돌을 담은 ‘지하철 난투극’ 동영상 인터넷에 돌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압축적 노령화¹³⁾의 영향이 드러나는, 노인과 청소년 세대 간의 의사소통 충돌의 한 사례이다. 동영상에 담긴 녹취 내용과 이후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반응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할머니에 대한 반응이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 현장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은 할머니에 대한 것이었다. “어른이 참아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할머니에 대한 비난이다. 어른답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비난도 같은 종류의 것이다.

사건의 선후 맥락이 있을 것이므로 동영상 장면만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 집중하게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해 문화적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한 노인에 대한 공동체적 이질감의 존재, 둘째,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역할 규범을 여전히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그것이다.

노인들의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따라 잡지 못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의미하는 ‘구조지체(structural lag)’ 현상(이금룡, 2008 : 252)을 보

13) ‘압축적 노령화(compressed aging)’는 한국의 근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결과 한국 사회가 갖게 된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일부분이다(장경섭, 2001 : 2 참고). 서서히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경제적 ·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대 이전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복합적 특성을 가진 노인 세대가 존재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잘 모른다. 어쩌면 노인 세대 역시 자신들의 세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국어교육학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 국어교육학 역시 어떤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지, ‘소통’, ‘치유’, ‘공존’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노인 리터러시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소통’의 국어교육

우리는 이제까지 논의를 통해 유관 학문에서 축적한 노인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노인들의 언어, 의사소통, 표현과 이해 활동이 하나의 중핵적 연구목표로 설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근본적인 학문적 정향(orientation)이 ‘인간의 언어 활동’에 있으며, 동시에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언어적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학에서 본격적으로 노인 리터러시를 다루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노인과 관련된 제 학문 분야에서 더 나아간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통’의 키워드를 내세울 때 국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노인 리터러시 현상의 분석적 이해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리터러시가 노년기의 상세 구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인 언어 활동의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노인 리터러시 현상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과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기 상세화에 따른 각 시기별 리터러시의 변화 및 환경 분석 :

노인들을 다시 ‘젊은 노인(young old : 65~74세)’, ‘노인(old : 70~79세)’, ‘늙은 노인(old old : 80세 이상)’로 나누는 이유는, 각 시기별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노인’의 경우, 직업 활동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이 여전히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터러시 활동이 요구되고, 동시에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필요성은 ‘노인’에서 ‘늙은 노인’으로 갈수록 더 적어지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험 자료에 근거하여 노인 리터러시 현상의 노년기 내의 변화상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터러시 현상이 이루어지는 환경 역시 함께 검토하여 노년기 리터러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 노인 말하기의 문화적 전형 및 언어관습적 기대 규범에 대한 변화 조사
(노년 세대 및 비노년 세대) :

노인과 관련된 언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 소통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라는 렌즈를 통해 노인이라는 특수한 연령대의 언어 주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대표적인 과제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말하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형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전형에 근거하여 언어관습적으로 노인에 대해 어떠한 말하기를 모범적인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윤이 요청된다. 압축적 근대화 속에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에, 우리들의 언어 문화의 한 단면에 이러한 변화 과정의 여러 의식적 변화가 퇴적층의 무늬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때, 노년 세대 자신이 느끼는 것과 비노년 세대가 기대하는 것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실제적 소통의 문제는, 언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주체의 의식, 태도, 가치의 충돌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러하기에 이 과제는 노인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실제적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적 방법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 노인들의 언어 생활 관련 요구 분석 및 언어적 자존감(linguistic self-respect) 조사 :

언어적 주체로서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언어 생활면에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언어적 자존감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의 언어적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 세대와 관련된 각종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치유’의 국어교육

노인 리터러시는 단순히 노인들의 의사 전달에만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이 언어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포함한다. 노년이 되면 우울증이나 자존감 상실, 지적 능력 퇴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에 대해 늙으면 으레 그렇게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쉽다.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노인 리터러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삼는다면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동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노인 리터러시는 ‘치유의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학의 치료 기능에 주목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학 치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치료란 인간의 삶에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문학 읽기, 문학 창작 등을 통해 인간의 병리적 증세를 개선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¹⁴⁾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시를 치

료에 이용하였으며, 언어와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시학』에서 ‘카타르시스’ 개념을 통해 문학의 정서적 동일시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근대에 와서는 샤우플러(Schauffler)의 『시 치료 : 시로 된 작은 약상자』(1925)에서 여러 편의 시를 심리 상태나 정신 질환에 사용될 용도로 분류하여 활용한 바 있다. 일련의 시들을 묶어 ‘성급함을 위한 진정제(안정감을 주는 시들)’이라고 분류하고 활용하였다. 현대에는 시 치료(poetry therap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려진 뉴욕의 시인이자 약사였던 그리퍼(Griefer)의 『시 치료의 원리』(1963)를 필두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에서 1969년 시 치료 협회(APT)가 설립되고 이어 이 단체가 1981년에 미국 시 치료 학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로 발전하여 왔다.¹⁴⁾

문학치료로 직접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주로 육체적·심리적 질병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환, 나아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보조하기도 하면서 치유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문학치료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섬세한 감정과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의미 인식을 감지케 하여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하며, ‘의미에의 의지’를 활성화하는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한다(노환홍, 2010 : 184).

문학은 현실의 개별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별 사실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가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잘 짜인 언어구조물로서의 허구만 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며, 신세 한탄을 읊조리는 민요, 지나간 삶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수필, 인상적인 순간을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로 남기는 포토에세이 등 다양한 형

14) 여기에는 시 치료(poetry therapy), 독서 치료(bibliotherapy), 저널 치료(journal therapy)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와 치료사 사이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위해 문학을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이봉희, 2010 : 173).

15) 시 치료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 Mazza(2003/2005) 참고.

식의 텍스트가 문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은 자신의 삶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치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노인 리터러시를 위한 치유의 국어교육은 위에서 살펴본 문학 치료의 특성들을 접목하여 국어교육의 일정 부분을 새롭게 재개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치료학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재개념화의 결과 역시 매우 폭이 넓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우선 개별성, 회고적 성찰, 회복과 창조 등으로 한정하여 노인을 위한 치유의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첫째, 치유의 국어교육은 개별성을 중시한다. 문학치료학을 통해 재개념화되는 국어교육, 특히 노인을 위한 국어교육은 청소년기 공교육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에 비해 훨씬 더 학습자의 개별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된다. 의사가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환자들을 집단으로 앉혀 놓고 그 평균점에 맞는 처방을 일괄적으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노인 학습자들에게는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세분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회고적 성찰이 강조된다. 노인 학습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온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 삶 가운데 풀리지 않고 있는 응어리나 오래 된 상처, 정신적 내상 등은 현재의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병리 현상들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다. 이것을 마냥 덮어 두고 있는 상태로는 병리 현상의 치유가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대상의 국어교육에 비해 일생을 돌아보는 회고적 성찰이 중시되고, 그러한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 수용·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¹⁶⁾

16) 수용과 창작의 과정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는 과정은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삶을 회고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그 작품에 투사함으로써 작품이라는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객관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작품

셋째, 회복과 창조가 필요하다. 회고적 성찰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과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면, 회복과 창조는 회고적 성찰의 대상이 된 과거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용하는 경우 작품 속 화자나 주인공이 보여주는 삶에의 열정,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만들어 낸 결과들을 통해 대리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과 창조의 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 자신이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새 삶을 돋게 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생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시 그려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작품 수용과 창작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위의 ‘개별성’, ‘회고적 성찰’, ‘회복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앓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끊고 앉은 것은 텁도라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틀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쟈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장난을 한다.

창작은 자신의 삶을 직접 회고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며, 이는 작품 수용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작품 창작이 기본적으로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회고적 성찰을 통한 객관화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작품 창작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77의 29.

이렇게 뛰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찌랴,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¹⁷⁾

이 시는 삼대가 한 집에 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정을 소재로 삼아 화자가 자신의 일생을 짧게 회고하는 작품이다. 제목이자 작품 속의 공간인 ‘우리 집’은 사실 구성원들에게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다. 철이 없을 때에는 장난을 치며 즐거웠지만, 어려서부터 나는 “외지로 떠 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중원, 충주, 안양, 정릉으로 거처를 뛰겨 보아도 본질적인 삶의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어릴 때의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를 먹게 된 지금, 삶을 돌아보다가 저승에 가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나는 지금 현재가 “더없이 행복하다.”

이 작품에서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사실, 즉 행정구

17) 신경림 시인은 1935년생으로 이 시는 시인이 73세(2008)에 간행한 시집 『낙타』에 수록되어 있다.

역상의 주소를 그대로 나열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견 매우 사적인 것 이지만, 묘하게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 나는 어디 어디에서 살았더라? 그전 집 주소는 뭐였지?’ 하면서 작품 속으로 자신을 투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작품 수용과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학은 뭔가 거창한 것을 담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개별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 작품 속에 이러한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은 시인은 이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회고적 성찰’을 수행한다. 그 회고적 성찰은 길고 긴 인생에 비해 매우 짧아서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는 말로 일생의 시도와 실패, 좌절과 다시 일어섬을 구구절절이 열거하지 않고 한 마디에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편 마지막 연에 오면 그 일생은 회고와 성찰을 통해, 예전에는 그저 벗어나고만 싶었던 삶에 대해 조금씩 부분 긍정을 하는 ‘회복’의 모습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어릴 적 아이의 이미지를 통해 구현하는 ‘창조’를 확인하게 된다.

살갗이 터지고
등이 휘어진
고목 한 그루

망망대해
육지는 아득한데
노 잃은 사공

꽃과 같이 피었던가
나비같이 날았던가
이정표도 없이

내세에는
꽃으로 태어날까
나비로 태어날까

—박경리, 「내 모습」¹⁸⁾

이 시의 제목은 ‘내 모습’이다. 작품에 형상화된 시인의 모습은 ‘고목’이면서 ‘배’이고, ‘꽃’이면서 ‘나비’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 오래 서 있는 고목이면서, 노를 잊고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평생을 떠다니는 배이기도 한 ‘나’, 정착과 유랑의 상반된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해 놓고 시인은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 그 모순된 모습이야말로 지금 현재 늙은 자신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젊었을 때로 그대로 연결되어 한 곳에 조용히 뿌리내린 ‘꽃’이면서, 또 이리저리 이정표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매우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살갗이 터지고 등이 휘도록 힘겨웠던 삶, 목표는 아득한데 기댈 것이라고는 없었던 삶의 고난, 그리고 이정표도 없이 방황했던 일생을 압축적으로 돌아보는 ‘회고와 성찰’을 담고 있으며, 현세의 삶을 비유하는 보조관념이었던 ‘꽃’과 ‘나비’를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하여 내세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이제까지 기성 시인이 노년에 남긴 작품을 ‘개별성, 회고와 성찰, 회복과 창조’라는 틀로 살펴보았다. 노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수용하면서 개별성이 구현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대신하여 놓고, 회고와 성찰, 회복과 창조의 과정을 대리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용과 함께 치유의 국어교육에서는 창작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의 창작은 작품의 문학성이나 기교보다는 최대한 자신의 삶 전체를 회고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매우 개별적인 부분까지 기억해 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기억을 떠올려서 정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상실된 부분을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전문적인 문학 창작 수업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으나, 집안의 부녀자들끼리 주고받던 가사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 낸 경북 지역 어느 할머니의 작품¹⁸⁾을 통해 치유를 위한 국어교육의 창작의 방향을

18) 박경리 작가는 1926년생으로 이 시는 시인이 74세(2000)에 간행한 시집 『우리들의 시간』에 수록되어 있다.

가늠해 보도록 한다.

- 15행 혼기가 늦어져서 십필세가 되었네 / 듣도못한 예안외내 광산김
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됐네
(중략)
- 44행 식구가 너무 많아 점점 더 힘드는데 / 끼니 때를 당하면은 밥
짓기가 걱정일세
종조부님 식성은 죽밥만을 잡수시고 / 시조부님께서는 고실고
실 고두밥만
즐겨서 잡수시고 꾸중은 안하시나 / 쌀과 보리 좁쌀까지 세 곡
식을 한 솥에다
앉혀 놓고 진밥된밥 어찌할까 걱정이라 / 어쩌다 잘못 되면 세
가지가 한데 섞여
죽밥이 되고 나면 이 일을 어찌 하리
(중략)
- 131행 을유년 칠월칠석 팔일오 해방되어 / 공출 싣고 갔던 보리 도로
싣고 돌아오니
정말인가 참말인가 꿈짝도 못한 내 맘 / 오늘날 살게 된 듯 해
방이 되었다고
태극기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만세 / 만세소리 외치려고 예
안으로 온 식구가
저녁밥도 먹지 않고 너무도 좋고 좋아 /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
안읍이 꺼지도록
힘껏 맘껏 독립만세 만세소리 진동하네 / 일본놈들 쫓겨가고 새
천지가 밝아왔네

19) 경북 안동시 예안면의 조경순 할머니의 작품으로 4·4조 율격에 한 행 네 마디 형식
으로 모두 234행에 이르는 가사이다. 1918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19세에 안동 예안
면 광산김씨 집안으로 시집 간 이야기부터 시작되며, 시집 왔을 때 시증조부 77세, 시
조부 56세, 시아버지 32세이신, 말 그대로의 충충시하 시집살이로 고생한 이야기, 서
른일곱에 첫 아들을 얻을 때까지 딸만 여럿을 낳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야기, 일제
치하의 고통과 광복의 기쁨, 자식들 학비 마련을 위해 옷 장사로 외지를 떠돌던 이야
기 등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다. 지은이가 81세 되던 1999년에 지은 것을 기록하여 지
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곰곰이 생각하니 죽은 나무 꽃이 핀 듯 / 얼씨구 좋을시구 나도
살 날 돌아온 듯

(중략)

200행 어화등등 이 사람들 내말 좀 들어보소 / 부디부디 정신차려 목
구명으로 넘기는건

무엇이든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마소 / 정말로 부탁이니 명심
불망 잊지 마소

나 같은 바보 못난 바보 다시 없네

못 먹을 나이만 먹고 살아 해 놓은 일 하나 없고 /

초년고생만 뼈 빠지게 하고 나서 돌아보니

세상만사가 일장춘몽 바람같이 사라지고 / 곱던 얼굴 주름살에
기억력도 멀어지고

음성조차 변해지니 무슨 수로 막으리요

(중략)

228행 정신이 혼미한 중 두어 줄 생각대로 / 회포나 풀어볼까 필을 들
어 설화하자 하니

내 가슴에 쌓이고 맺히고 썩은 소회

다하자면 태산도 부족하고 부족하며 / 만권지가 유유부족이나
정신이 흐미하여*

단문둔필 대강 기록하오니 보는 이들 / 놀라놀라 살펴주기 고
망고망 하오이다

(끝)

“들도 못한 예안 외내 광산김씨 가문”으로 시집 와서 한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이 구구절절이 펼쳐져 있다. 율격 면에서도 네 마디의 율격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으며, 평생 일어났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압축적으로, 그렇지만 장면마다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가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작가는 실제 한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들에 관한 정보들을 특별한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상황들을 작품 속에 배치하면서 작가는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 불러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현재 아파하는 부분, 치유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으로 ‘회고와 성찰’의 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전해 오던 내방가 사의 화자—청자 구조를 통해 내면적 성찰을 혼자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어화 등등 이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식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회고하며 성찰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일종의 감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취나 고난에 대한 과장이 따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나 같은 바보 못난 바보 다시 없네”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만 치환한다든가, 자신이 너무나도 할 말이 많다는 점을 은근히 과장된 표현으로 잠깐씩 보이고 있다.²⁰⁾ 그렇지만 일생 동안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들을 상세하게 짚어 내고, 그로부터 자신의 생이 가지는 의미를 냉정하게 정리함으로써 양식적 특성이 줄 수 있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회고와 성찰’을 일정한 수준까지 수행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창조’의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일생을 돌아보는 작업을 통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깨닫거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등의 명시적인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회복과 치유의 창조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시집살이 초기의 밤 짓기(44행)를 리듬감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면서 살짝 해학적인 면을 덧붙인다거나, 해방의 감격을 노래(131행)하면서 상당히 매끄러운 율격적 대구와 “죽은 나무 꽃이 핀 듯”과 같이 적절한 비유를 통해 형상화를 한 점, 그리고 그러한 민족 공동체의 변화를 “열씨구 좋을시구 나도 살 날 돌아온 듯”과 같이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발상 등은 매우 탁월한 창조적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마지막에서 ‘가슴에 쌓이고 맷하고 썩은 소회’를 풀기 위해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대강 기록함을 밝히고 있는데, 어쩌면 이 때의 “회포나 풀어볼까 펼을 들어 설화하자 하니” 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한 ‘회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 물론 이는 이 가사 양식에 흔히 쓰이는 일종의 상투어구들을 관습적으로 차용한 결과 이기도 하다.

일찍이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치료학 연구를 선두에서 개척해온 정운채(2001)에서는 서애 유성룡이 시교(詩敎), 즉 시의 교화적 측면과 효용에 대해 논의한 ‘시교설(詩敎說)’로부터 ‘흥(興)과 억압된 기억 일깨우기’, ‘원(怨)과 뒤틀린 관계 바로잡기’의 두 가지 문학치료학적 원리를 도출한 바 있다. 앞에서 노년에 접어든 현대 시인들의 작품, 그리고 일반인의 가사 작품에서 발견한 ‘회고와 성찰’, ‘회복과 창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학치료학적 원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흥’과 ‘원’의 개념을 조금 더 일상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²¹⁾

3. ‘공존’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의 시작으로 ‘노인 리터러시’를 다루는 셋째 키워드이자 궁극적 키워드는 ‘공존’이다. ‘노인 리터러시’를 중심에 놓고 국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는 한국어 언어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대 간의 차이, 연령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행복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공존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공존’을 위한 주요 수단은 바로 ‘국어교육’ 그 자체가 된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존을 위한 국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첫째 방향은, 노인 리터러시에 대한 국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년층에 대한 소외 없이 세대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국어교육에 노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양과 적절한 내용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내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노인이 될 국어 학습자들이 전생애적 차원에서 자신의 언어 생활의 전개와

21) 정운채(2001)에서 흥은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겨 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일에, 그리고 원은 개인적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규범, 제도, 체제의 건강성이 뒤틀린 상태에 연결된다.

변화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불어 동시대에 살아가는 노인 화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방향은 한국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인 리터러시’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서이다.

현재 국어교육 실행이 국면에서 노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표 3>은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성취기준 및 해설 내용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 시 고려해야 할 연령 변인 및 노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의 경우 성취 기준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관련 자료나 과제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상세한 내용 제시 및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심화 선택 과목의 경우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화법과 작문 I>에서는 청자의 연령 특수성을 고려하여 말의 속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독서와 문법 I>에서는 어휘 수준에서 노인어의 특수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국어>에 비해서는 좀 더 연령 변인으로 인한 국어 활동의 변화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 나타난 노인 관련 교육 내용(1~12학년)

과목	내용
국어	[3-듣-(3)]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친구 또는 웃어른과 주고받는 전화 대화
	[3-말-(3)]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친척이나 웃어른의 안부를 묻거나 전하는 전화 대화
	[4-듣-(3)] 소개하는 말을 듣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내용 요소의 예> 소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기 ……소개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학습자에게 어른부터 친구까지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제시하여 예의나 친밀감을 표현하게 하거나……

과목	내용
국어	[6-(듣)-3] 인사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하는 인사말 친구 간 인사말이나 웃어른 에 대한 인사말 등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적인 대화 상황의 간단한 인사말을 물론, 연설, 발표, 각종 의식(儀式) 등의 공식적인 상황의 인사말까지 고루 다룬다.
	[6-말-(3)]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
	예컨대 선생님이나 웃어른 께 인사말을 하는 경우와 손아랫사람에게 인사말을 하는 경우 인사말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웃어른께 인사를 할 때에는 특히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쓰-(3)]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축하하는 글을 쓴다. 글의 수준과 범위 졸업이나 입학, 합격, 각종 대회에서 상을 탄 일이나 생일, 어른(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등 축하를 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글쓴이도 함께 기뻐한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목적, 대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억양, 성량, 속도, 어조로 말한다. 여린이나 노인 에게 말할 때에는 말의 속도를 평소보다 더 느리게 하여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⓪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방언, 은어, 남성어, 여성어, 노인어 , 공대어, 관용어, 완곡어, 전문어, 신어, 사고 도구어, 유행어 등을 대상으로 단어들의 집합으로서의 어휘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화법 작문 I	
독서 문법 I	

그렇지만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의 변이어 중에서도 사회적 현안과 깊은 관계에 있는 노인어에 대한 초점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인간 언어 발달에 대해 전생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생각의 기반을 넓혀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다루게 된 ‘언어 습득’의 부분을 확대하여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을 전생애 주기별로 이해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존을 위한 국어교육으로 향하는 둘째 방향은, 국어교육의 장 안에서 노인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교육 외연의 확장을 꾀해

중등 이후 성인기 교육을 시도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학습자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 활동이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의 어떤 활동 영역에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평생교육 및 평생 교육 및 성인기(노년기 포함) 교육의 내용의 정교화, 세분화, 영역 특수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대상을 노인을 포함한 성인으로 넓힘으로써, 국어교육의 외연 확장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국어교육의 기획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IV. 결론

초고령 사회로 변화될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령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파생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해결의 과정에는 ‘소통’ 요인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국어교육적 접근이 긴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입각점을 세우고 첫째, 노인들의 언어 생활은 국어 교육학적 시각 아래 ‘노인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목적적인 단독 연구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됨으로써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둘째, 국어교육학은 ‘노인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리터러시에 주목함으로써 대상의 확장과 함께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어 학습자의 전생애적 주기 전체를 고려하는 국어교육적 기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고의 논의에 이어, 실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반영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0. 10. 31. 투고되었으며, 2010. 11. 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 박경리(2000), 『우리들의 시간』, 나남.
- 신경림(2008), 『낙타』, 창비.
- 조경순(1999), 「나의 과거사」, 내방가사 채록 자료(경북 안동시 예안면).

〈논문 및 저서〉

- 강수균 · 김동연 · 석동일 · 조홍중 · 최경희(2001), “노인성 질환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사소통 문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 109~134.
- 김기태 외(2009), 『노인복지론』, 고양 : 공동체.
- 김수영 외(2009), 『노년사회학』, 학지사.
- 김영주(2007), “디지털 시대의 이방인, 노인”, 박은희 편저, 『디지털 마니아와 포비아』, 커뮤니케이션 북스, 243~261.
- 김은성(2008), “국어 변이어의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221~255.
- 김정완 · 김향희(2009),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현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4, 495~513.
- 김정우(2007), “교육의 관점에서 본 시의 대중성 : 시적 리터러시의 교육을 향하여”, 『한국시학연구』 18, 한국시학회, 39~70.
- 김태준(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 교육개발원.
- 나항진(2009), “아동과 노인간의 세대공동체 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세대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665~1683.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0(2), 1~15.
- 노환홍(2010), “문학 텍스트 의미의 적용과 효능 연구 : 문학치료 방법론에 기초하여”, 『독어교육』 48,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61-189.
- 마이클 L. 힐트, 제리미 H. 립슐츠 지음, 홍명신 옮김(2006), 『늙어가는 미국 : 미디어, 노인, 베이비붐』,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영목(2008), “21세기 문식성의 특성과 문식성 교육의 과제”, 노명완 · 박영목, 『문식

- 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42~77.
- 박인기(2008), “21세기 문식성의 특성과 문식성 교육의 과제”, 노명완·박영목,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78~98.
- 안정임(2007), “디지털 빙곤”, 박은희 편저, 『디지털 마니아와 포비아』, 커뮤니케이션 북스, 262~281.
- 이금룡(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한국노년학회, 143~159.
- 이금룡(2008),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 인지연령과 차이연령 분석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정체성 연구”, 『한국노년학』 28(2), 251~267.
- 이병민(2005),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리터러시 교육”,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133~175.
- 이봉희(2010), “문학치료와 여성 : <라이언 킹>”, 『현대영어영문학』, Vol.54 No.1,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73-192.
-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한국가족학회, 1~29.
- 정경희 외(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합의 :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숙·김인주(2007),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지각한 노인 특성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0, 한국심리학회, 171~184.
- 정운채(2001), “‘시교설(詩敎說)’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국어교육』 104, 한국어교육학회, 347-371.
- 정진웅(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 아카데미.
- 정혜영(2003), “발달적 교육인간학과 인간 이해”, 『한독교육학연구』 8(2), 한독교육학회, 67~92.
- 조르주 마누아 지음, 박규현·김소라 옮김(2010),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 조성남(2004), 『에이지붐 시대 :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두진 외(2009), 2008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학지사.
- 허정무(2007), 『노인교육학개론』, 양서원.
- 홍명신(2007), 『에이징 커뮤니케이션 :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명신(2010), “한국노년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 : 1980~2009”, 『한국노년학』 30(1), 31~47.
-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하우.

- Blazer, D.(1998), *Emotional Problems in Late Life :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fessional Caregivers* ; 김동배 외 역, 『노년기 정신건강 : 노인의 정서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개입전략』, 학지사, 2007.
- Charness, N.(2001), Aging and Communication : Human Factors Issues, Charness, In N., Parks, D. C. and Bernhard A. Sabel (E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ing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3~29.
- Cronin, A. & Mandich, M.(2005), *Human Development & Performance :Throughout the Lifespan* ; 양영애 외 역, 『일생에 걸친 인간발달과 작업수행』, 테라북스, 2009.
- Fox, J.(1997), *Poetic Medicine :The Healing art of poem-making* ; 최소영 외 공역, 『시 치료』, (주)시그마프레스, 2005.
- Hedden, T, & Park, D. C.(2001), Culture, Aging, and Cognition aspects of Communication, Charness, N., Parks, D. C. and Bernhard A. Sabel (E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ing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81~107.
- Hynes, Arleen and Hynes-Berry Mary(1994),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 St. Cloud, M N :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Inc., 1994.
- Mazza, M.(2003), Poetr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 김현희 외 공역, 『시 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McIntyre, A. & Atwal, A.(2005), *Occupational Therapy and Older People* ; 황기철 역, 『노인 작업치료』, 영문출판사, 2009.
- Moody, M. T. & Limper, H. K. (1971), *Bibliotherapy :methods and materials*, Chicago : American Lib. Assn.

<초록>

소통, 치유, 공존의 국어교육 —노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김정우 · 김은성

본고는 초고령 사회로 변모해 가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상에 주목하여, 국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리터러시로서 ‘노인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논의의 필요성과 접근 방향 검토를 통해 국어교육의 확장과 심화의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 리터러시’는 신체적으로 노화의 증상이 뚜렷한 특정 연령대 세대의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의 ‘정보’는 모든 종류의 기호로 표상된 것을 포괄한다.

‘소통·치유·공존’은 노인 리터러시 접근의 세 가지 방향성을 알려준다. 기능적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소통’을 화두에 두고, 노인 리터러시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치유로서의 노인 리터러시’는 단순한 정보처리 과정으로서의 리터러시가 아닌, 문학 작품이라는 특수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정서 공감, 성찰적 반성까지 가능하게 하는 리터러시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치유’를 통해 얻은 성과가 확산되어 ‘공존’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핵심어】 노인 리터러시, 소통, 공존, 치유, 국어교육

<Abstract>

Korean Education for Communication, Treatment, and Coexistence

—Centering on Literacy of Old People—

Kim, Jeong-woo · Kim, Eun-sung

The purposes of the study is to suggest 'literacy of old people' as a novel literacy and propose a way of method of its extension through the review of its necessity and approaching methodology centering on the societal change of Korea into a super aging society. 'Literacy of old people' denotes the competence of understanding information and expression on a specific age group which has noticeable symptoms of physical aging. And, in the sense, 'information' includes every kinds of symbolic expression.

'Communication, treatment, and coexistence' shows three orientations of approach toward 'literacy of old age'. On the func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communication' it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can be structurally analyzed. 'Literacy of old age as treatment' embodies literacy which promotes emotional sympathy and self-reflection through the medium of literary works as well as literary as a way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final chapter of the study educational problems will be addressed to suit 'coexistence' by the expansion of fruitfulness of 'communication' and 'treatment'.

【Key words】 literacy of old people, Communication, Treatment, Coexistence, Korean Education